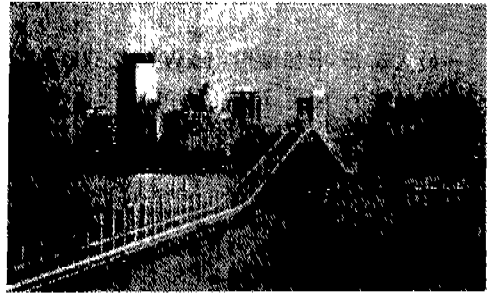


# 東南亞 諸國의 表情

(3)



朴 漢 宗

大韓電氣協會 出版部長

## 홍 콩

23日 12時 방콕을 出發. 機上 헤드폰에서 울려 나오는 디스코 音樂과 함께 두둥실 구름 위를 떠가는 氣分이 나쁘지 않다. 氣象關係로 飛行機가 약간 요동을 친다. 安全 벨트를 배라고 스텐어스가 座席을 돌아 다니며 지적한다. 14시 경 홍콩 上空到着. 두번째 보는 光景이지만 海岸을 누비는 배들의 흰 꼬리와 수많은 섬들과 빌딩 숲의 연속.

香港이 Hong Kong이라는 이름으로 世界歷史에 등장한 것은 불과 150年 정도밖에 안된다. 예전에는 人口 7,000名 정도의 작은 魚村이었으나 아편전쟁 (AC 1840~42)에 의해 英國의 植民地가 된 이후 147年 동안 이곳은 世界의 自由貿易 港으로서 發展을 계속해 왔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홍콩은 中國 革命의 거점 역할을 하였고 1941年 12月부터 '45年 8月까지 3年 8個月 동안 香港은 日本 점령하에 놓여 있었다. 이때 日本軍의 억압과 경제 혼란을 피해 한때 170만명이나 되던 홍콩 인구가 60만명까지 줄어들기도 했었다. 1984年 末에

英·中 합의문서가 조인되어 1997年 7月 1日을 기하여 홍콩의 주권이 英國에서 中國으로 반환된다는 것이 正式으로 결정되었다.

홍콩은 世界에서도 有名한 人口過密地域이다. 불과 1,069km<sup>2</sup>의 土地에 558만 8천명이 살고 있다. 이 중에서도 더욱 人口가 集中되어 있는 香港島, 九龍 등에는 1km<sup>2</sup>에 2만 811명이라는 실로 경이로운 人口가 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빌딩과 맨션 등 건물들은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만가고 있다 보다. 하도 높은 건물이 많아 아침에는 골목 안이 어둡고 큰 길가(큰 大路라야 4車線 정도)에 나와야 흰하다. 모두가 높기만 하다. 그래서인지 Bus도 2층이요, 電車도 2층이다.

原來 2층 Bus는 英國人들의 人種差別 때문에 생겨났다는 現地 가이드의 說明이다. 2층에는 白人이 타고 1층에는 黃色人種이 탔었는데, 그후 돈 많은 中國人이 Bus 會社를 사서 2층의 Bus 賃정을 없애버려 그러한 差別이 없어졌다던가...

홍콩 空港은 飛行機에서 트랩을 걸어 내려 Bus를 타고 建物로 가서 人口手續을 해야 하는



△ 2층 電車와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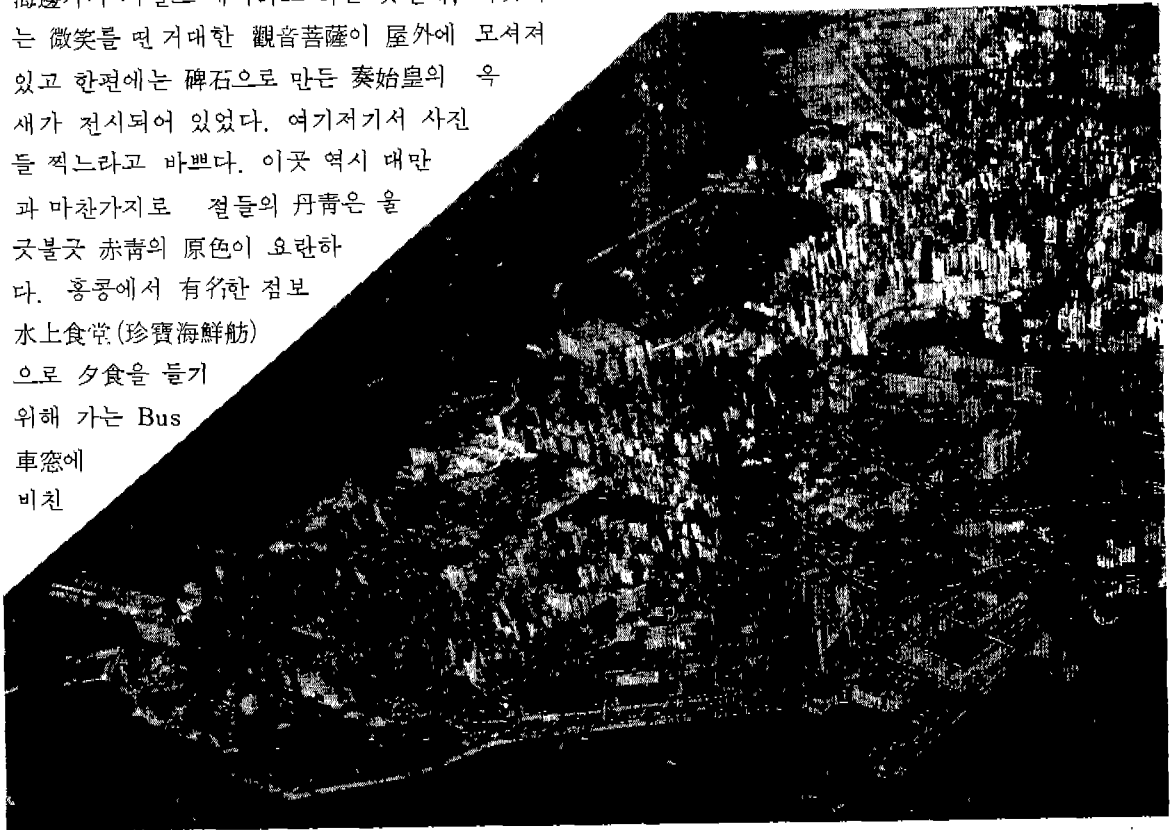
것이 韓國이나 대만·泰國과 달랐다.

啓德空港이 있는 九龍半島를 떠나 길이가 2.5 km나 된다는 海低 터널을 통과하여 香港島에 있는 EXCELSIOR 호텔에 旅裝을 풀고 즉시 觀光을 나섰다. 그런데 이 호텔은 34층짜리로서 1급 호텔이라는데, 칫솔·치약이 없고 면도칼도 없으며 食水도 미네랄 水를 別途로 사서 마셔야 한다. 물이 貴한 곳이라서 食堂에 가셔도 食사를 할 때만 물을 준다.

처음 到着한 곳은 호텔에서 20分 거리에 있는 海邊가의 지펄스 베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는 微笑를 띤 거대한 觀音菩薩이 屋外에 모셔져 있고 한편에는 碑石으로 만든 奏始皇의 墓새가 전시되어 있었다. 여기저기서 사진들 찍느라고 바쁘다. 이곳 역시 대만과 마찬가지로 절들의 丹青은 울긋불긋 赤靑의 原色이 요란하다. 홍콩에서 有銘한 점보 水上食堂(珍寶海鮮舫)으로 夕食을 들기 위해 가는 Bus 車窓에 비친

周圍光景은 역시 높은 건물들뿐이다. 홍콩은 땅이 좁은 곳이라 自己 집이라고 해도 土地使用料를 내야 한다. 따라서 대단한 富者가 아니면 單獨住宅을 가질 수 없다. 自家用을 줄리려면 自己 집이라도 주차료를 월 20만원, 會社에 가셔도 20만원 정도 내야하므로 웬만해서는 自家用車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한편, 自家用이 필요 없을 만큼 大衆交通手段이 그만큼 잘되어 있다.

一般 아파트도 30층 이하가 드물고, 工場도 30층 이상의 빌딩 내에 있었다. 그 건물은 振動에 強하도록 특수 시설로 되어 있다는 안내자의 說明이었고, 또 기이한 것은 墓地가 市内 한복판에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墓地를 死者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5年이고, 그 유지비도 비싸며, 5년 후에는 묘지에서 파내어 火葬을 해야 한다고 한다. 國民學校도 빌딩 내에 있었다.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問題가 되고 있는 運動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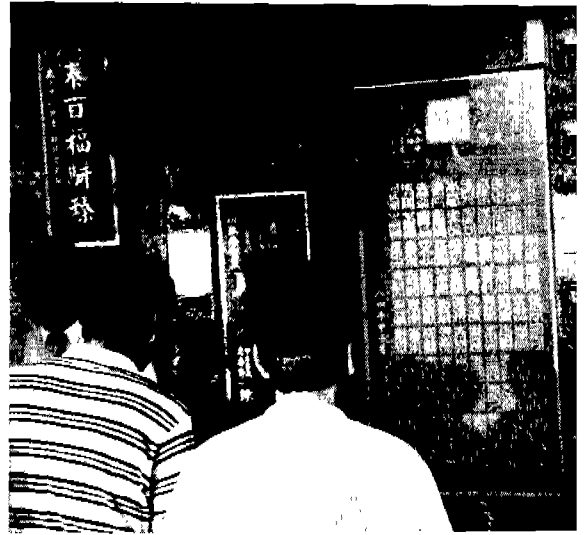
없는 學校라는 고민은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水上食堂은 海岸에서 배를 타고 10分정도 가야 하는데, 그 食堂이 巨大하고 華麗하기 비길 때 없었다. 1개층이 약 500평 정도 되는데 食堂은 3개층으로 되어 있다. 그 위의 면적이 작은 또 3개층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른다. 食堂이 커서인지 支配人인들이 無電機로 지휘(?)를 하고 있다. 이곳뿐이 아니라 홍콩은 빌딩 수위도 공원 안내원도 모두가 無電機를 들고 다닌다.

食卓 위에 있는 물은 손을 씻는 물이니 먹지 말라는 가이드의 注意와 같이, 食卓에는 수정과 물과 같은 물이 그릇에 담겨져 있었는데, 이것은 비린내를 없애주는 특수한 잎사귀로 만든 물이라고 한다. 料理는 먼저 葉茶로부터 시작해서 蟹肉粟米와 8가지가 나왔는데, 맛보다는 外國人들이 들끓고 찬란한 照明과 화려한 丹色에 공연히 氣分이 들뜨게 되는 분위기였다.

夕食後 Bus를 타고 山으로 百萬弗짜리 夜景이라는 홍콩 夜景을 보러 갔는데, 그 중간에서 50年代의 유명한 映画 “慕情”을 촬영하던 호텔을 지나쳤다. 새삼 그때의 主題歌와 윌리엄 홀덴의 名演技가 되살아나 나 自身이 몇 10年 젊어진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하였다.

74층짜리 건물도 보이는 山上에서의 홍콩 夜景은 찬란한 불빛과 빌딩 숲이 印象的이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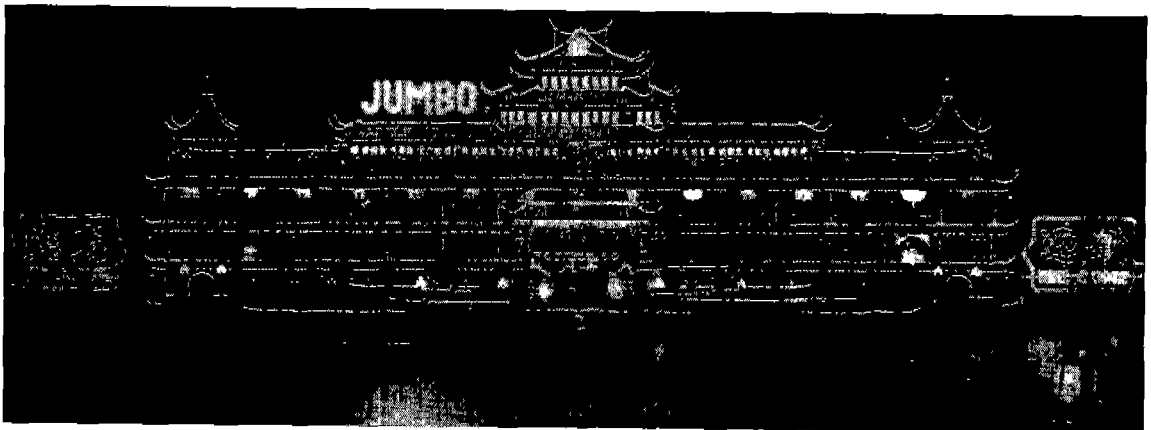


△ 秦始皇의 옥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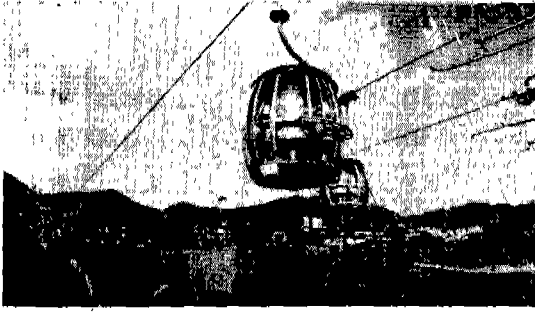
네온사인이 一切 없어 좀 맥빠진 느낌이 들기도 했다. 예전에 이 네온사인 때문에 航空機가 바다로 곤두박질하고 나서부터 法으로 네온사인을 없앴다고 한다.

홍콩은 國民所得이 6,500불이고 80%가 中國人이라고 한다. 밤거리의 商店街 表情은, 몇 10% 세일 안내를 써 붙인 衣類店에서 옷을 고르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光景이었다.

땅이 귀해서 建물이 높게만 올라갔다고 했지만 그와 함께 건물 내부의 계단·복도도 좁고 길



△ 水上食堂



△ 바다를 가로지르는 곤돌라

가 道路도 좁기만 하다. 길은 좁고 建物이 높아 서 고개를 完全히 걸쳐야만 하늘이 보인다. 한편, 大理石이 많은 나라라서인지 건물의 内外벽, 계단, 바닥, 엘리베이터 内部 등이 온통 번쩍번쩍 빛나는 돌로 단장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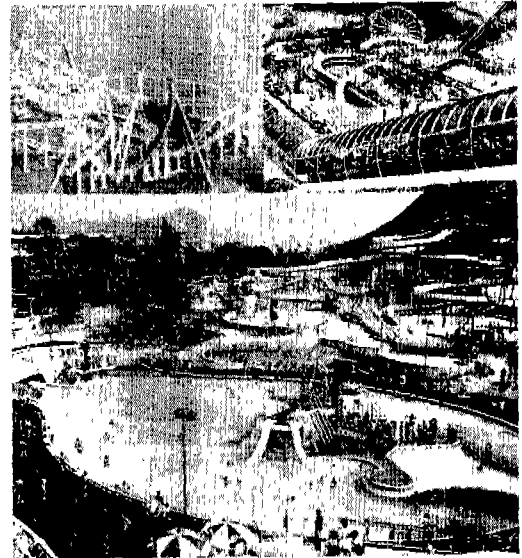
24日 아침 8시경, 리펠스 베이 옆 海水浴場에서 水泳. 아침 이른 時間이라 사람들이 붐비지 않아 좋았으나 너무 조용해 김이 빠지기도 했다. 물이 차가워 선뜻 물속에 들어가지가 망설였으나 일단 들어 가고 보니 괜찮았다. 水深이 급격해서 우리나라 東海岸 海水浴場과 같았다.

다음에 찾은 곳이 海洋公園인데, 아시아 最大의 海洋公園이라고 하는 Ocean Park는 南朗山 구릉에서 南支那海에 이르는 일대를 전부 사용하는 굉장한 넓이이다.

작은 動物公園·植物園·水族館 등 求景할 것이 많았는데, 특히 큰 상어와 사람만한 거북이, 작고 예쁜 진기한 물고기 등 약 3천종, 4만마리가 헤엄치고 다니는 巨大한 水族館은 自身이 바다 속에 들어간 듯, 童話 속의 世界로 들어간 듯 꿈꾸는 듯한 時間들이었다.

公園 위까지는 6人乘의 圓型 곤돌라로 약 10분간 가야했으며, 각아지른듯한 단애 절벽을 지나 南支那海의 大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었는데, 이 케이블 카는 360대나 運行되고 있다고 한다.

山頂의 深水角 끝 부분에 있는 제트 코스터를 타면, 눈 앞이 바다이기 때문에 머리부터 바다로 돌진하듯 하는 急降하는 그 박진감이 상상을



△ 海洋公園의 각종 놀이施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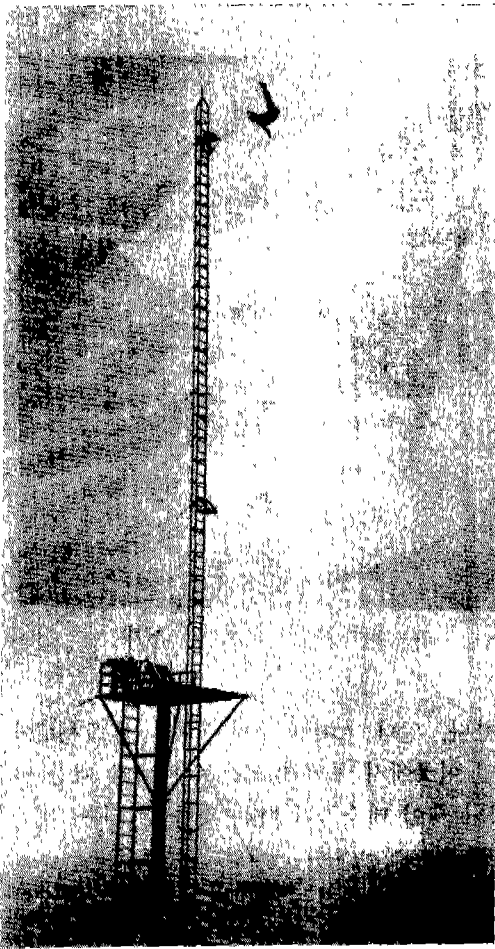
초월한다. 일단 入場만 하면 모든 施設利用이 無料인 이곳에서 두번째 코스로 바이킹 배를 타고 나니 속이 메속거려 다른 것을 더 타는 것을 포기했다.

헤드랜드 파크에서는 범고래·물고래·물개의 쇼 등을 관람하였다. 물개의 박수치기, 경례하기, 고래들의 水中에서 서서 가기, 空中 회전, 꼬리만 물 위에 내 놓고 흔들기, 원형 링 통과하기 등 그 妙技에 童心の 박수를 보냈고, 마지막에 다이빙 쇼 등이 펼쳐진 이곳 스타디움은 4천석이나 되었다.

下山할 때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 가는



△ 범고래 쇼



△헤드랜드 파크의 다이빙 쇼

데, 그 길이가 745피트이다. 세계 最長의 아웃도어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中間에서 몇 째 갈아 타기는 하지만 한없이 한없이 내려 가는데 땀聲을 내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

오후에 찾은 國際電氣電子博覽會도 廣場이 아닌 역시 高層 빌딩 內(7층)에서 개최되고 있었다. 國기 게양대에는 太極旗도 펴려있고 있어 氣分이 좋았으나 그 박람회 규모와 분위기가 우리나라와는 比較가 안되게 초라(?)한 것 같아 失望하였다.

저녁 食事は 韓食 불고기로 했는데, 우리가 지나 온 臺灣, 泰國, 홍콩 등 가는 곳마다 우리 음식점들이 많아 이것에서도 새삼스럽게 國力伸張을 느꼈고, 이제 世界 어디를 가도 食事 때문에 苦生하는 일은 없을 것 같은 生覺이 들었다.

## ○마카오

이번 旅行의 마지막 날인 5월25일에는 바쁜 日程에, 계획에 없던 마카오를 가기 위해 호텔에서 5시30분 起床, 너무 일러서 호텔에서 食事を 못하고 市內에 있는 韓式집에서 海장국으로 요기를 해야만 했다. 홍콩은 빌딩의 國家라서 마카오로 가는 데도 빌딩 內에서 出國手續을 하고 떠나는 데도 빌딩 1층에서 배를 타고 出國한다.

航空機 제트 엔진을 달았다는 홍콩發 噴射船은 時速 100km의 速度로 마카오를 向해 달린다. 一名 水中翼船이라는 이름의 배로 50分만에 到着한 마카오의 中國語 이름은 아오먼(澳門)으로 홍콩에서 서쪽으로 64km 거리에 있으며, 홍콩의 1/10 크기이다. 16세기 초에 포르투갈이 東方進出의 前進基地로 개발한 곳으로, 東西 무역·상업의 中心地였고 기독교가 東洋으로 들어 온 교두보가 되기도 했다.

홍콩이 英國의 '直轄殖民地'라는 事實에 반해서 마카오는 포르투갈 行政 아래에 있으며, 95% 이상이 中國人들로 되어 있는 시민들은 포르투갈 國民과 同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言語는 물론 廣東語이다.

이곳은 홍콩과는 달리 高層 빌딩도, 숨이 막힐 것 같은 번잡스러움도 없다.

19世紀 말에 淸朝에서 포르투갈로 이양된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殖民地가 되었고 그로부터 약 90年 후인 1975년에 本土 포르투갈이 社會主義 國家가 되자 殖民地의 해방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다음 해 새 憲法이 공포되고 그때까지 '포르투갈의 海外都市'였던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行政 아래에 있는 地域'이 되었으며 현재는 홍콩과 마찬가지로 1999年12月21일에 中國에 반환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現在는 모든 것이 홍콩에 밀려 골동품의 나라로 전락한 곳이기도 하다.

簡單한 入國手續을 마치고 부두에서 現地 韓國人 女性 가이드의 案内로 마이크로 버스로 市內를 달린다. 전물들은 모두가 상당히 오래되어



△ 마카오의 관음당

古色이 창연했고, 中國式의 것과 포르투갈 양식의 것이 섞여 있어 두 나라의 분위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는데, 中國 거리는 여전히 시꺼먼 얼룩 아파트가 2~5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수풀과 언덕 길이 많은 것이 特徵이고 壽命이 오래된 많은 나무들이 평온함을 안겨 준다.

물은 中國 本土에서 수입,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 水道管이 道路 옆에 길게 누워 있었다. 都心地 길가에는 몇 년전에 完工했다는 水力發電所가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서야 마카오 자체에서 發電한 電氣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中國 땅이 바로 건너로 바라보이는 海岸에는 높은 鐵條網이 쳐져 있는데, 한때 中國으로부터 밤에 이 江을 헤엄쳐 건너 오다가 많이 銃殺을 당했다고 한다.

마카오는 人件費가, 마카오人是 8萬원이고, 中國人是 2萬원인데, 그나마 돈을 벌기 위해 中國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헤엄쳐 온다는 說明이었다.

키가 3m가 넘는 유도화가 滿發한 中國과의 國境地域에서는 中國에서 나오는 밀수꾼들이 야채나 생선 속에 비취 등 보석을 감추고 넘어 오고 있었는데, 마카오 쪽 조사관은 전성으로 뛰고 通過시키고 있었다. 같은 中國人으로 봐주고 있다는 現地 가이드의 설명이 있었고, 옛날 이곳 國境線으로 최은희가 넘어갔다는 말을 附

말한다.

마카오 二大 사찰중의 하나인 1627년에 건립됐다는 觀音堂 古廟의 普濟禪院이 市内 北東部에 있었다. 이곳의 觀音像은 마카오 最大라고 하며 堂內 벽면에 있는 中國祀 18 현인의 像도 볼만 하였다. 境內에는 북적대는 信者들과 쯤내와 煙氣가 자욱했고, 만지면 오래 산다는 壽字 모양의 나무도 전시되고 있었다.

한편, 애뜻한 사랑 이야기를 간직한 稀貴하게 생긴 4그루의 나무가 서로 엉켜 있었고, 한쪽 들에는 1844년에 中國과 美國이 通商友好條約을 체결했다는 圓型 테이블이 간직되어 있었다.

結婚한지 1年 됐다는 韓國 女子 가이드는 귀엽게 생긴데다가 熱心이어서 짧은 時間에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계속 뛰어 다니 男子인 우리들이 쫓아 다니기 힘들 정도이다.

聖 폴天主堂터를 가는 途中 김현희가 항공기 폭발전 10日間 체류했다는 호텔을 보았고, 가는 途中 호텔·病院·墓地가 줄지어 있었다. 이곳도 墓地를 1人當 5年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옆에 刑務所도 있었는데, 在所者가 1名도 없다고 하니 治安狀態는 100점인가 보다.

市内에 만들어진 돌 길은 400年前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때 돌을 배로 실어 왔다고 하는데, 이 도



△ 마카오와 中國의 國境



△ 몬테要塞서 내려다 본 마카오 市内

路에는 中央線도 만들어져 있어 그 當時의 건설자가 누굴까 싶었다. 초대 총독 동상이 서 있는 거리에는 街路樹가 즐비해서 있는데 이것은 200年前에 총독 지시로 심어진 것으로서 뿌리가 地上으로 나와 멋있게 영켜 있어 괴목 같았고 무성한 잎과 큰 가지에서 오래된 年輪을 느낄 수 있었으며, 廣場에 세워진 初代 總督 銅像은 古色蒼然하였다.

넓은 돌계단을 한참 올라간 市街地 中心部 구릉 위에 聖堂이 세워져 있었다. 17세기 초에 이탈리아 예수회 修道師가 天主堂을 설계, 工事を 어렵게 진행하고 있던 중 日本에서 추방된 日本人 크리스찬의 協力으로 完成했다는데, 당시는 東洋에서 가장 아름다운 教會로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現在는 1835年 태풍 때의 火災로 불타서 건물 正面의 벽면과 계단 벽의 一部分만 남아 있다.

聖 폴 天主堂 동쪽에는 몬테의 要塞가 있는데, 天主堂과 마찬가지로 예수 信徒들에 의해 건축된 것이라고 한다.

네덜란드인의 침공을 막기 위해 구축된 이 城에는 10여門의 大砲가 그대로 있고 이 砲臺는 현재 기상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마카오에서는 男子가 장가를 가려면 新婦 父母에게 1,000~2,000만원을 지불해야 하고 身分이 높을 수록 金額이 높아진다고 한다. 結婚을



△ 聖 바오로 聖堂

해도 新婦를 데려 오는 것이 아니라 新婦집으로 살러 가야 하고, 밥도 빨래도 男子가 해야 한다니 가히 女人天下라고나 할까. 그리고 住宅도 男女共同名義로만 등기가 된다고 한다. 賭博의 都市이기도 한 이곳 市内에는 (押)字 표시가 된 점포가 많았는데, 이것은 전당포라고 한다. 한편, 銀行도 많았는데 서로 경쟁이 심하여 住宅 구입시 70% 정도는 銀行에서 融資하여 준다고 한다.

點心은, 비싸다는 포르투갈 와인에 正統洋食으로 했는데, 포크와 칼 등을 안쪽의 것부터 차례로 사용하다는 가이드의 指示(?)가 있었다.

12時半 마카오를 出發하여 13時半 香港 到着. 그리고 16時 지나 서울行 飛行機를 타니 이번 9泊10日間の 旅行이 겹겹이 구름진 하늘 위에서 마감을 하고 있었다.

〈連載 끝〉